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51호 【루계 제2625호】

주체109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음력 11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들이 뜨겁게 굽이쳐 오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걸으시며 존엄높고 위대한 백전백승의 당, 일심단결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만민이 심장으로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여 세계 진보적인류가 드린 수많은 호칭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 빛나는 정치경륜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진보적인민들은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시며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시여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을 《탁월한 정치원로》, 《명장중의 명장》, 《인류예지의 최고체현자》, 《성인중의 성인》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 시절에 벌써 외국류학생들로부터 《위대한 태양이 낳은 위대한 조선의 별》로 칭송받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풍모로 하여 만사람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으시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과 같은 밝은 빛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고 태양과 같은 위력한 힘으로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서술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의 루다꼬바도 만나뵈올수록 온넋이 끌리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의 미소는 진정 태양의 미소이다, 나는 진짜 인간태양을 보았다고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다.

하늘에 태양이 제일 높이 떠오르는 정오에 종을 울리게 되여있는 정교의식의 엄격한 계률을 어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원을 찾아오시는 시간에 종을 울리면서 그이께 아뢰인 로씨야정교 사원인 성자 인노젠찌 이르꾸쯔끼사원의 신부 쎄로뽄뜨의 마음속진정의 토로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사원에 태양이 오셨습니다. 태양이 오셨는데 종을 울리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력사에 이름난 정치가와 명인들이 적지 않지만 년대와 세기를 이어 위인중의 위인으로, 희세의 대성인으로 세인의 각광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 같으신분은 일찌기 없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보좌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뵈온 당시 수카르노대통령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명장의 슬하에서 명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수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이시니 슬하에 있는 젊은 사령관도 위인이심이 틀림없다.》

행성에 굽이친 흠모의 대하속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에 매혹되여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인》, 《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충신의 귀감》으로 경모의 정을 표시한 짐바브웨의 전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와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요제프 쎄르비스따,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를 비롯한 여러 정당 인사들은 우리 장군님을 《비범한 사상리론가》, 《결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위인》으로 호칭하였다.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이적인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위인께 《다재다능에서 세계의 최고인 리상적인 지도자》, 《문학예술과 건축의 대가》, 《인류음악의 천재》, 《세계적인 대문호》 등의 호칭들을 드리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그이를 《사회주의와 인류운명의 구원자》로 격찬한 도미니까의 한 정계인사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의 운명》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고 진정을 터친 전 꾸바녀성법률가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의 심장의 목소리들은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분출이다.

독창적인 총대철학과 선군정치로 무적필승의 강군을 키워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하시며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희세의 선군령장께 드린 호칭들은 만민의 끝없는 경모심을 응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투철한 군정치활동가》, 《완전무결한 군사가》, 《백승의 작전가》, 《장군형의 정치가》, 《무적필승의 상징》, 《천하제일 령군예술가》, 《불세출의 영웅》…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오스트리아 전 사법상 한스 클레카츠키는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적신념이 강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신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실천가》로 격찬하였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나라의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매혹적인 정치가》, 《외교의 거장》, 《능숙하고 로련한 정치가》, 《국제정치의 원로》, 《례의가 밝고 소탈하며 겸손하고 다정다감한 출중한 위인》, 《유모아에 능하신 령도자》로 찬양하였다.

참으로 혁명생애의 전기간 특출한 실력과 숭고한 덕망,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만인을 감복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을 초월하여 세계 수억만인류의 열렬한 신뢰와 경모를 받으신 전설적위인이시다.

본사기자

절세위인께 드리는 인류의 다함없는 경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존경과 신뢰의 정은 세계 170개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단체, 국제기구들, 정계,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올린 4만여점의 선물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80(1991)년 2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여 주체사상탑을 형상한 수정공예품을 선물로 드리였다.

주체99(2010)년 10월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옥돌공예 《벌새》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경모의 정은 우리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에도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기가 직접 도안하고 인디아의 유명한 공예가에게 부탁하여 수개월만에 제작한 우아하고 정교한 금도금목걸이를 선물로 올리였다. 선물에는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만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쿠웨이트 뚜르끼 알 답부스와 아들들의 회사 리사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공예 《조타》를 선물로 드리였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세계정치를 주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여 조타를 형상한 공예품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수정공예 《정일봉에 솟아오른 백두광명성》을 삼가 드리였다.

그는 백두밀림의 수수하고 작은 귀틀집에서 탄생하신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구상과 세련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무한대한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여 어제도 오늘도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 수행에 밝은 빛을 더해주시는 김정일각하를 흠모하여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이후 올린 백십여점에 달하는 진귀한 선물들은 그이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러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의 결정체이다.

하기에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은 외국의 벗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글도 보았지만 이렇게 서거하신 후에 받으신 선물들을 보니 영생이라는 말의 뜻을 심중히 받아안게 된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없이 숭고한 풍모와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월과 더불어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만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공장과 학교 등 나라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버이장군님의 숭엄하신 영상이 떠오르는 그리움의 12월이다.

한평생 인민들을 찾아 조국땅 그 어디에나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오늘의 눈부신 기적과 전변의 기저에는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어리여있다.

북방의 철의 기지로부터 양떼 흐르는 황금산의 언덕을 넘어 배고동소리 울리는 어장을 지나 먼 바다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곳곳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깃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이께서는 수천리 강행군길도 웃으며 이어가시였고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짓군하시였다. 인민행렬차의 마지막 기적소리를 울려가신 12월의 그 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이 땅에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훌륭히 꽃피고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에까지 령도의 자욱을 찍으신 이 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첨단제약공업의 토대를 그쯘히 갖추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해에 공장을 다시 찾아주시고 공장에서 수액약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과로 공장에 어려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주체103(2014)년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생산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다음해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이 마련되였다.

어느날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농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흘리신 인민사랑의 고귀한 땀방울이 그대로 열매가 되여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과일대풍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던 수령님들께 가지마다 주렁진 과일들을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나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새 거리와 새 마을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차오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생각뿐이였다.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희한하게 개건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였고 평성합성가죽공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전변된 공장을 찾고보니 기쁨도 크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하여 마음이 아파온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영원한 부름 - 우리 어버이

우리 어버이!

이 부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부름말이다.

하다면 어이하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도 친근하게, 그처럼 스스럼없이 어버이라 부르며 따르고 받들어오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그이께서 인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기때문이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인민들이 《피바다》의 어머니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난날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늘을 생각해야 하며 자기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은 그이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신 일념이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시고 실천하신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않으시며 우리 인민을 위한 그이의 헌신의 열도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더해만 갔다.

가셔야 할 곳, 보셔야 할 단위가 그리도 많으시여 명절날 바람부는 북방의 발머리에서 몇알의 구운 감자로 끼니를 에우신 사연이며 아침도 건느시고 점심도 미루시며 공장의 구내길, 발전소 건설장의 험한 길들을 걸으신 이야기들을 오늘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이다.

자신께서 걸음도 많이 걷고 밤잠도 덜 자면서 고생을 하면 인민들이 그만큼 행복해진다는것이 그이의 삶의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강행군, 희생적인 헌신에 의해 시련의 먹장구름이 가셔지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무수한 행복의 씨앗들이 열매로 주렁지게 되였다.

하기에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인민생활의 갈피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취가 어려있는것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어디가나 그이의 높은 뜻과 사랑이 어려있는 거룩한 땅이니 이 성스러운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기가 송구스럽다, 신발을 벗고 땅을 디뎌야 마땅하지 않겠는가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던것이다.

정녕 마를줄 모르는 천지의 맑은 물처럼, 꺼질줄 모르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뜨겁고도 열렬한 절세위인의 인정의 세계에,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겨 복된 삶을 누려온 공화국인민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 장군님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장군님의 락

주체100(2011)년 12월의 첫 일요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겨울의 추위와 찬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유희장을 돌아보시며 관리운영실태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그이께 한 일군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요일의 추운 날에 또다시 유희장을 찾아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내가 일요일 추운 날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찾아온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는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 자신의 락이라고 하시였다.

색 날은 장갑

주체100(201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나음악정보쎈터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흐름식생산공정에서 조립되여나오는 제품을 보시던 그이께서 절단되는 회로판 하나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보시였다.

그때 주위에 선 사람들의 눈길은 일시에 그이께서 끼신 장갑에 가멎었다. 오래동안 끼신것이여서 실밥이 다 풀려있었던것이다.

제일 큰 기쁨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돌아보신 그날은 주체100(2011)년 12월의 추운 겨울날이였다.

그이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상업봉사기지를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새로운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선물식물 전주꽃

진주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네데를란드의 원예업자 케스 싸힌이 주체78(1989)년에 선물로 올린 식물이다.

네데를란드에서 제일 큰 화초식물원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새 품종들을 육종해내고있던 케스 싸힌은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주체사상에 깊이 공감하게 되였고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온넋으로 매혹되게 되였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7돐을 맞으며 선물을 올릴것을 생각한 그는 자기가 경영하는 식물원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주꽃을 많이 번식시켜 10여품종의 알뿌리 1 000개를 알알이 골라 선물로 마련하였다.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알뿌리화초인 진주꽃 어미종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의 열대지방이다. 화분용, 꺾음꽃용으로서 그 품종이 다양하다.

케스 싸힌이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올린 진주꽃들은 색갈이 선명하고 꽃이 큰 우량품종들로서 재배가 널리 장려되고있다.

본사기자

단상 12월의 흰눈

지난 일요일에 눈이 내렸다. 그날 산과 들에, 거리와 마을에 포근히 내린 흰눈은 걸음을 재촉하는 나의 어깨우에도 살풋이 내려앉고있었다.

강산을 덮으며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속을 걷는 나에게는 류다른 정회가 뜨겁게 마쳐왔다.

그것은 눈내리는 겨울정서에 대한 감흥만이 아니였다.

천송이, 만송이의 흰눈이 떠올려주는 위대한 장군님생각이였다.

그이를 그리는 사람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온 누리에 하얀 꽃바다를 펼치는것만 같았다. 12월의 대자연도 삼가 경의를 드리는듯싶었다.

고요히 내리는 흰눈과 더불어 나의 생각은 쉼없이 고패치고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어려오고 그이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였으며 한평생 마음속에 안고 사신 흰눈덮인 백두산이 안겨왔다. 그이께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위하여, 강성부흥을 위하여 쉬임없이 이어가신 굽이굽이 철령의 눈길과 오성산의 험준한 산악, 강계의 눈보라길과 같은 만단사연의 선군장정,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이 사무치게 안겨왔다.

열의인, 정의인이신 그이께서는 흰눈을 유별히 사랑하시였다.

흰눈은 소리없이 내려 조용히 녹아 만물에 생명수를 준다.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며 그 헌신을 자신의 《흰눈철학》이라고, 흰눈철학은 바로 자아희생이라고 하시며 수천수만리의 숫눈길, 눈보라길을 걸으시며 애국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오시였다.

그이의 한생은 흰눈을 사랑하시고 온 겨우내 대지를 품어안아 온갖 자연의 광란을 막아주고 따스한 봄을 부르며 만물에 소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순결한 흰눈처럼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이라는 생각이 더욱 새삼스럽게 갈마들고있었다.

나 하나뿐이 아니다.

내가 잘 아는 한 문필가는 장군님의 한생은 《위대한 눈보라한생》이였다고 자기의 심경을 터치였었다.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12월의 흰눈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깊이 추억하며 그이를 영원한 수령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것이다.

12월의 흰눈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평생과 고귀한 업적을 떠올려주는 추억의 흰눈, 그리움의 흰눈이다.

정 무 림

위대한 단결의 해, 승리의 2020년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2020년이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류달리 올해는 정초부터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다. 세계적으로 악성비루스전염병이 걷잡을수 없이 파급되는 속에 폭우와 큰물이 휩쓸고 태풍이 2차, 3차로 련이어 들이닥쳐 재난을 막고 가셔내는데만도 국가적인 큰 힘이 돌려져야 했다. 자연재해가 농업을 비롯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은 물론이다.

고난과 시련은 련속 앞을 가로막았으나 공화국은 주저앉은것이 아니였다. 난관을 맞받아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 또 전진하며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왔다.

무엇이 난관앞에서도 사람들을 굴하지 않게 만들고 웃으며 복구건설과 창조의 기적들을 련이어 이룩해올수 있게 한것인가.

그것은 일심단결의 강력한 힘이 있었기때문이다.

이해에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난관을 이겨내고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가는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 높이 발휘되였다.

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올해 공화국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치국확대회의를 비롯한 국가적인 회의들이 례년에 없이 많이 진행되였다. 회의들에서 토의된 안건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는 문제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병마로부터 사랑하는 인민을 지켜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기에 인민은 비상방역전이 자신과 가정,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깊이 명심하고 고도의 자각적일치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악성전염병이 침습할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도 철저히 막아왔다.

남들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이 혼연일체의 위력은 큰물과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도 뚜렷이 과시되였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하시며 멀고 험한 피해현장들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치시였다.

지난 8월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문제, 수재민들에게 보장해줄 필수물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수재민들이 군당위원회청사에서 생활하는 력사에 없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나게 되였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작업도 하고 허물없이 마주앉아 농사일도 의논하는 혼연일체의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며 피해복구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에 접한 수도의 당원들이 앞을 다투어 피해복구장으로 떠났고 인민군군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복구전역들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어디서나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풍이 꽃피는 속에 일심단결의 대풍모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오늘 큰물이 모든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고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대청리와 강북리,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전변은 혼연일체가 낳은 기적적승리이다.

하기에 올해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더욱 공고해지고 그 위력으로 또 한걸음 크게 내짚은 단결의 해, 전진의 해로 되고있는것이다.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길에 나선 공화국은 앞으로도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만 곧바로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한 10월명절

전세계가 한해동안 계속되는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커다란 공포와 불안, 탄식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 속에서 지난 10월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열병식과 경축대회, 군중시위, 횃불행진을 비롯한 국가적행사들이 성대하게 진행되여 국가의 존엄과 위상,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여

례년에 없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모습이 더욱 빛난 못 잊을 한 해였다.

이해에 공화국 인민들은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영웅적인 헌신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영예로운 승리자로 긍지높이 한해를 총화하고있다.

특히 어렵고 힘겨웠던 이해에 수도와 지방이 한덩어리가 되여 서로서로 뜻과 마음을 합쳐 곤난을 극복한 고상한 미풍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함남땅의 피해현지에서 한자 또 한자 쓰신 공개서한.

수도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그 공개서한에서 그이께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정이 자자구구 어려있는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수많은 수도의 당원들이 저저마다 수도당원사단의 한 성원이 될것을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들가운데는 머리희슥한 로당원도 있었고 피해지역 주민들속에도 당장 혼례를 치르어야 할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장가갈 때 쓰려고 마련했던 례장감을 통채로 들고나온 평범한 로동자도 있었다.

이렇게 수도의 남녀로소모두의 마음이 피해지역으로 달리고달리였다.

불보다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안고 달려간 수도당원사단전투원들이기에 피해복구전투장마다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맡겨진 전투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정든 집, 평양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서슴없이 발걸음을 돌리였던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겪는 생활상고통과 애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자기들의 성의가 어린 지원물자들을 현지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고무해주었다.

지방인민들도 수도 평양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면서 높은 공민적자각으로 비상방역전, 큰물피해복구전을 비롯한 국가적인 사업들에 발벗고나섰으며 결과 국가와 인민의 안녕은 더욱 튼튼히 지켜지고 나라의 재부, 인민의 재부는 더욱 늘어나게 되였다.

오늘 피해지역마다에 즐비하게 늘어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수도와 지방이 하나가 되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온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정녕 올해는 공화국인민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한 뜻깊은 한해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앞으로도 그가 수도에서 살건, 지방에서 살건 한마음, 한뜻이 되여 령도자의 애국의 구상을 받들어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켜갈것이다.

본사기자 유 금 주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군대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자기의 친자식들처럼 여기면서 적극 원호하는것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재부로 여기고있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

이것은 공화국의 특이한 풍경이고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굳세여지는 군민대단결의 자랑찬 위력은 올해에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도전과 난관들을 극복해나가면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조치에 의해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건설을 위해 수많은 인민군군인들이 떨쳐나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건설전투를 벌리여왔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를 비롯하여 큰물과 태풍피해를 받은 지역들에서도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의 함성이 더 높이 울려퍼지였다.

올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복구지역으로 긴급이동 전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시를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사품치는 강물을 서슴없이 헤가르며 달려나가 파괴된 살림집들과 도로들을 복구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인민사랑의 조치에 의해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에로 달려나간 인민군군인들도 혁명군대의 강용한 기상과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하여 맡은 복구건설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들은 살림집건설에 바쳐가는 자기들의 량심과 노력은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알아주고 인민들이 평가하게 된다고 하면서 건설물들마다에 자기들의 정성을 깡그리 바치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그날 군인들이 일떠세운 집과 거리들을 보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뜻과 구상을 결사관철하고 꽃피워가는 인민군군인들을 피해지역 인민들은 어디서나 뜨겁게 맞아주었다.

그 나날에 군인들을 위해 진정을 기울인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여주었던가.

원호물자를 거듭 사양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나 진정이 어린 물자들을 넘겨주기 위해 벌리였던 검덕녀인들의 류별난 《작전》, 성의껏 산나물을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안겨준 대흥의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인민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언제나 도맡아 해제끼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그들을 뜨겁게 원호하는 인민들.

이 군민대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류 성

현직검찰총장에 대한 첫 징계처분

남조선에서 현 검찰총장이 임명된지 불과 1년 4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징계총장》이라는 불명예를 받은데 대하여 언론들이 보도하였다고 한다.

《련합뉴스》, 《매일경제》 등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현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을 의결한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검찰총장이 판사불법사찰, 수사방해, 정치적중립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처분되였다, 법무검찰행정력사의 오점이다, 현 검찰총장은 사상 첫번째 《징계총장》이 되였다고 평하였다.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2차심의에서는 《판사사찰의혹문건》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측의 징계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증인채택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진통이 거듭될 요소가 많아 결론이 나지 않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었다.

한편 《프레시안》과 《디지털타임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은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항소를 하고 직무에 복귀된 이후 검찰총장의 언행과 《국민의힘》의 립장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 수감한데 대해 《검찰의 표적, 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 수감한것은 《정책적사안을 정치적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저지의 지레대로 쓰는 명백한 검찰권람용》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선언한 법무부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 《즉시 경질해야 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고 일부 초선의원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립장을 요구하며 청와대앞에서 《이어달리기식》시위를 하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향후 정치권론난과 시민들의 피로도 가중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갈수록 혼란스러운 남조선정국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당국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집값폭등, 악성전염병재확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론난 등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전세, 〈COVID－19〉, 검찰 〈3란〉에 문정부 휘청… 민심리반 적색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부동산폭등에 이은 전세대란과 《COVID－19》대란, 검찰총장징계추진에 따른 검란 등 《3란》이 《대통령》의 지지률을 흔들며 30%대까지 무너뜨렸다, 특히 여권을 떠받치는 호남은 물론 충청지방과 30대 등 중도층의 민심리반이 뚜렷해 여당과 청와대를 긴장시키고있다, 《3란》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수 없어 여론반전이 쉽지 않을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하면서 《싸늘한 민심이 피부에 느껴진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시장선거를 치르나마나 질게 뻔하다.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있다.》는 더불어민주당내부의 우려도 함께 전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얼마전 《정부》가 개각을 단행한데 대해 여당이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국면전환용》이라고 깍아내린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언론은 여당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오기 개각》, 《슬퍼하고 분개하다는 뜻의 개각》, 《국면전환용》이라고 한 《국민의힘》대변인론평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장관후보자들의 결함을 들추면서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벼르는데 대한 내용도 함께 실었다.

그에 대해 여당은 《새로운 인물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비난부터 하는건 과도한 비난》이라면서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포부도 밝히지 않았는데 뭘 비난하는것인지 리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련합뉴스》, 《서울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당국의 이번 인사에는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담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이 법적대응을 시도하다 종당에는 《국민의힘》으로 《정치적피신》을 시도할 가능성을 주목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되는 반응으로 하여 여야당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될것은 불가피하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전두환역도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 고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전두환역도가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4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전두환역도의 집을 비롯한 4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과 다양한 규탄투쟁을 벌렸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2.12군사반란은 그뒤 5.18광주집단학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어서 전두환일당의 집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고통속에 살게 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10여년이나 지체하게 만든 대역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자들은 《얼마전 국회에서 5.18관련법안이 통과되였다. 그러나 전두환은 아직도 5.18학살에 대해 부정하고있으며 사죄하지 않고있다. 전두환과 그 일당은 12.12군사반란과 5.18학살을 통해 권력을 찬탈했다. 전두환은 죽기전에 모든것을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력사와 국민이 심판할것이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력사를 써나갈수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있어서 전두환을 심판하는것은 무엇보다 상징적이면서 핵심이다. 우리 국민은 전두환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투쟁장소들에서 전두환의 초상을 골프채로 때리고 《감옥》에 처넣으며 닭알과 밀가루세례를 안기는 등의 상징의식과 1인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신문은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숨가쁘게 느는 국방예산, 이게 최선인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숨가쁘게 느는 국방예산, 이게 최선인가》라는 제목으로 남조선에서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국방예산증액과 그 문제점에 대해 까밝혔다고 한다.

신문은 래년도 국방예산이 올해에 비해 5.4%나 올랐다고 하면서 이와 반면에 《COVID－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로동자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절반가까이 삭감되고 2021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군비증강실태는 숨이 가쁠 정도이다. 북위협과 주변국위협,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등을 명분으로 한 전력증강속도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북과 주변국위협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타당성이 없다. 과장된 안보위협평가에 기초한 초공세적인 군사전략수립과 공세전력도입, 군비확장은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도리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예산을 랑비할뿐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안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무기도입이 계속되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것은 국방예산확보와 몸집불리기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상투적인 《북위협》부풀리기에서 비롯된것이라고 까밝혔다고 한다.

본사기자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남조선에서 여야당의 《립법전쟁》으로 정기《국회》에 이어 림시《국회》도 《싸움판국회》, 《란장판국회》로 되였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 《뉴시스》가 전한데 의하면 정기《국회》가 진행되던 8일 《국민의힘》소속 수십명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개정안처리를 반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실앞에서 항의시위를 벌렸으며 어느 한 의원은 《공수처법》안건조정위원회내용을 보고하는 토론자의 마이크를 꺾어버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바람에 위원장이 맨 손바닥으로 의장석을 두드려 《법안》을 처리하는 촌극까지 벌어져 정기《국회》는 《사실상 〈동물국회〉를 재현했다.》고 언론은 평하였다.

한편 림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토론시간을 무한정 끌어 다른 당의 합법적의사진행을 방해하는것)를 이어가는 바람에 여야간의 설전이 이어졌다고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뉴시스》,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소속 의원들이 여당의 법안강행처리는 《립법독주행위》, 《정보원법》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였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기간 여야의원들이 무려 89시간나마 토론을 하였으며 그중 《국민의힘》소속의 한 녀성의원은 12시간 47분동안이나 토론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에서는 《엿먹어라》, 《아녀자》, 지어 《정보원법》개정안, 《5.18특별법》개정안 등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닥쳐법〉》이라는 상말들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가 욕설로 란무하다.》, 《국회가 배설창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공수처법》, 《정보원법》, 《경찰법》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 광 혁

《당안에 또 당》? 각계가 우려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이 당내에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을 공식 내왔다고 한다.

《매일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청년국민의힘》은 유럽의 어느 한 당산하청년단체를 모방하여 만든것으로서 예산권, 인사권, 결의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당안의 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청년국민의힘》창당은 지난 6월부터 계획하고있었지만 다른 보수정당에 있던 청년들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하여 여러차례 창당이 늦어지게 되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의 《청년국민의힘》창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매일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당안의 당》인 《청년국민의힘》이 제 목소리를 내겠는가, 정치권에 뿌리를 내릴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상하질서가 강한 남조선정치문화토대우에서 《청년국민의힘》이 유럽의 청년당과 같은 자생력을 가질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때만 《청년정치》를 내세우고 활용했다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각종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운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전하였다.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청년국민의힘》의 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 만들것》이라고 하면서 《여야현안에 대해서도 독립된 정당으로 립장을 내려 한다. 당지도부와 다른 립장도 얼마든지 낼수 있다.》고 한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의 발언도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각종 정책추진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혁신》파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는데 앞으로 《청년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치적독자성과 자률성이 당내부의 혼란만 더욱 부추길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여야정당들이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당안에 미래세대특별위원회나 청년위원회와 같은 각종 청년기구들을 내온적은 있지만 《국민의힘》과 같이 당안에 독자적인 정당형식을 갖춘 조직을 내온것은 정당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률을 올려보려고 《당안의 당》을 내왔지만 청년층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안 권 일

《우토로》마을은 고발한다

얼마전 일본의 교또부에 있는 재일조선인마을인 《우토로》에서 일제시기 강제징용으로 끌리워왔던 한 할머니가 9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한다.

경상남도가 고향인 할머니는 8살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였다가 1944년에 이 마을에 이주했으며 당시 징용자들중 지금까지 유일한 생존자로 남아 력사의 산증인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생전에 일본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사죄도 배상금도 받지 못했으며 결국 풀지 못한 원한과 분노를 안고 세상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사실 《우토로》마을은 그자체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치떨리는 온갖 반인륜적범죄와 그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외면하고있는 일본당국의 비인간성과 파렴치성을 세상에 날날이 폭로하고있는 하나의 고발장이나 같다.

원래 이 마을은 1941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리용할 군용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조선에서 강제로 끌어온 2 000여명의 로동자들을 들이밀었던 함바들이 있던 자리이다.

비행장건설에 내몰린 강제징용자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마소처럼 고역에 시달리다 죽거나 불구자가 되였고 일제가 패망한 후 살아남은 1 300명중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사람들이 풀과 나무, 흙을 이겨 하늘을 겨우 가리는 집 아닌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것이 《우토로》마을의 시작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집들이 생겨나고 후손들이 태여났지만 일본당국은 이곳의 조선사람들에게 아무런 직업도 생활조건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이들은 수십년동안 상하수도시설을 비롯한 초보적인 주거시설도 꾸려지지 못한 빈민가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더욱 격분할것은 이곳의 조선사람들이 불법거주자, 타국인으로 몰리워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당국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다못해 지어는 마을에서 쫓겨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것이였다.

당시 일본의 언론들도 만일 일본의 당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량심이 있다면 강제징용되였던 조선사람들에게 응당 거주와 직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었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조선사람들의 초보적인 생존요구를 묵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도리여 이곳의 토지가 군용비행장을 건설하던 전범기업체의 소유이고 처분권은 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1999년 일본대법원에서 조선사람들을 마을에서 강제퇴거시키라는 강도적결정까지 내리게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철면피한 반인간적만행은 우리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유엔에까지 상정되였으며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자 급해맞은 일본당국은 《토지소유권대금처리》, 《마을꾸리기》 등의 사탕발림소리로 저들의 범죄적죄행을 무마해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조선사람들의 후손들 수백명이 일본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권리와 생활상조건도 지원받지 못하고있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우토로》마을에서 마지막 조선인강제징용자의 사망과 수많은 강제징용자후손들이 겪고있는 고통스러운 나날들과 비참한 생활처지는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일제의 반인륜적죄악의 악랄성과 범죄성을 만천하에 론증하고있으며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고있는 일본당국이야말로 후안무치한 반인권범죄자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배 영 일

조선인강제징용자들의 비참한 모습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날강도적인 인삼략탈행위

지혜롭고 근면한 조선민족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정에 제일먼저 인삼의 약리적효능을 발견하였으며 그 생산을 늘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과 오랜 기간 조선의 인삼생산과 리용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져 인삼은 조선의 명물로, 상징물의 하나로 되였다.

개성고려인삼의 특이한 효능은 세나라시기에 벌써 일본땅에까지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출판된 《택리지》의 필자는 당시 일본에서 인삼이 희귀한 보물로 취급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왜국은 토질이 대단히 나빠 온 나라 샘들이 독기를 가졌는데 만약 인삼을 구해서 물동이에 넣어두면 독기가 풀어지므로 인삼을 가장 중한것으로 여기였다. 조선봉건정부에서 일본에 주는 인삼도 그 수를 정하고 인삼의 개인매매를 엄금하였으나 일본인들의 요구가 높아 인삼값이 계속 뛰여올랐다.》

《택리지》에 씌여진바와 같이 세나라시기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인삼은 신령스러운 귀물과도 같았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은 오래전부터 개성고려인삼에 눈독을 들여왔으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던 첫 시기부터 인삼략탈에 미쳐날뛰였다.

1876년 강도적인 《강화도조약》날조이후 일확천금을 노리고 조선에 기여든 일본의 무직건달자, 불량배들은 제일선참으로 인삼포전에 달려들었다.

초기에 강탈자들은 떼를 지어 도적고양이처럼 야밤삼경에 인삼밭에 달려들어 마구 인삼을 뽑아서는 주머니란 주머니에 다 쑤셔넣어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도적질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들까지도 《품안에 인삼을 한근, 두근, 세근 가능한대로 넣어가지고 갔는데 점차 도적질에 이골이 트자 더 많이 략탈하기 위해 후에는 따로 외투나 양복을 만들고 거기에 주머니를 많이 달아 인삼이 한가득 되였다.》고 토설하였다.

이렇게 도적질한 인삼을 인천에 운반하여서는 달마다 한번씩 일본에서 오군 하던 정기선박을 통하여 몰래 일본으로 빼돌리군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략탈한 인삼을 다 날라갈수 없게 되자 정기선박의 회수를 2주에 한번씩으로 늘이였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세관의 단속을 피해가며 수십척의 뽀트에 인삼을 실어 바다로 날라가서는 운반선에 옮겨싣군 하였다.

일제의 인삼략탈행위는 조선강점시기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장묵인하에 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정치, 군사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질식시키기 위해 조선봉건정부의 인삼전매권을 빼앗아내는데 달라붙었다.

이미 국권강탈전인 1902년부터 인삼판매리권을 빼앗아내기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미쯔이물산》과의 위탁판매교섭을 해온 일제는 1903년에 판매권을 따낸데 이어 1905년에는 조선왕궁내부의 전매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들었다.

사실 홍삼전매로 궁내부에 들어오는 수입은 대단하였는데 1903년에 한해의 수입금만도 100만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금이 계속 조선봉건정부의 수중에 들어가 그것이 반일투쟁에 쓰이는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궁내부의 전매권을 빼앗기 위해 기를 쓰고 달라붙었다.

1907년 조선봉건정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즉위하여 《미쯔이물산》과의 위탁판매를 중지시키려들자 일제는 즉시에 조선봉건정부의 전통적인 전매권을 폐지하고 제멋대로 궁내부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여 그 권한을 일본인차관이 들어앉아있는 탁지부에 넘겨버리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는것과 함께 《조선총독부전매국관제》를 공포하고 그 출장소를 개성에 두어 인삼에 대한 략탈과 전매를 강행하였다.

일제는 1911년 2월 《조선총독부령》 21호로 《인삼경작장려규칙》을 공포하고 홍삼생산량을 30 000근으로, 1922년에는 35 000근으로 늘이였다.

일제는 홍삼전매의 리윤을 더욱 높이기 위해 1912년 《조선총독부소속관서》의 관제를 개정하면서 전매국은 페지하고 그 사무를 사세국에 옮기였다.

1921년에 전매국을 다시 내오면서 여기서 조선인삼을 총괄하게 한 일제는 1920년에 종래 전매령의 불비한 점을 고쳐 《조선총독부령》 24호로 《홍삼전매령》을 발포한것을 비롯하여 《홍삼전매규칙》을 계속 수정보충하면서 인삼략탈에 광분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인삼의 상표도 《조선총독부》명칭을 달아 전통적인 고려인삼이나 조선인삼, 개성인삼의 고유한 명칭을 말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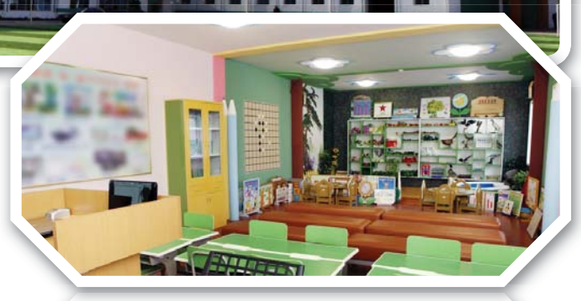
일제는 이렇게 조선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하고 1911년부터 1942년까지의 기간에만도 고려인삼을 무려 1 930만근이나 략탈해갔다.

실로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 전기간에 감행된 일제의 고려인삼략탈책동은 그 강탈수법과 수량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극히 야만적이고 범죄적인것이였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평양교원대학

교육자양성의 원종장



◇ 공화국에는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원대학들이 있다. 평양교원대학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교원대학은 짧은 기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주체107(2018)년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만족해하시였다.

◇ 평양교원대학은 모든 교육행정사업이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지향되고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 자연실험교수수법실,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을 비롯한 모든 교실들이 전공실천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로 잘 꾸려져있다.

대학에서는 가상교수정황에서와 실지교수정황에서 수업을 해보는 새롭고 특색있는 교수방법도 적용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 수 있게 꾸려져있다.

체육관의 경기홀은 롱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는 물론 정치, 문화행사도 할수 있도록 다기능홀로 훌륭히 꾸려져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시초

한 녀의사의 수기 (5)

김 영 일

사랑의 천사가 되고싶다

어느 국제의학토론회에서
나는 여러 나라 의사들에게 소개했다
인민적인 우리 나라의 보건제도
나의 의료활동에서 얻은 경험에 대하여

의사담당구역제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시책, 엄격한 방역제도…
동으로부터 중앙까지 정연한 의료봉사체계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
우리와 친숙해진 그들
마지막으로 여담삼아 묻는단다
당신이 직업상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가

나는 생각해보았다
의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을가
완치된 환자를 마주할 때였을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의 인사를 받을 때였을가
아니 아니 그때도 기뻤지만
제일 기쁠 때는 그때가 아니였어
내가 담당한 세대들에 오늘도
한명의 환자도 없다고 보고할 때였지
담당구역에 환자가 한명도 없을 때가 기뻤어

그들은 놀랐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군요
환자가 없으면
우린 실업자가 됩니다

잠시후 그들은 말했다
아 무상치료제 그걸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군요
사회제도에 따라 같은 의사라도
당신들은 사랑의 천사가 되는군요
우리도 사랑의 천사가 되고싶다

두뇌경쟁무대에서 6련승

《코드쉐프》경연은 우수한 프로그람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1부류에 속하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중의 하나이다.

매달 진행되는 국제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도전경연은 높은 코드작성능력뿐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프로그람기술의 대결장으로, 해당 나라의 지능수준과 지적잠재력을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이 경연에 처음 참가한것은 2013년이였다.

그해에 이들은 《코드쉐프》경연에서 정보과학의 첨단에 올라선 조선의 청년대학생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4련승을 기록하고 《새로운 코딩황제》로 불리웠다. 그후에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훌륭한 경기성과들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었다. 이러한 자랑찬 전통을 이어가며 지난 시기 《코드쉐프》경연들에서 뛰여난 쏘프트웨어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해온 대학의 정보과학소조에 망라된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하여 11월까지 6련승을 기록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준 어머니조국에 국제경연에서 우승의 금메달로 보답할 애국의 일념안고 지식과 재능을 끊임없이 련마하여온 수학부 4학년 학생은 올해에 처음으로 도전경연에 참가하여 영예의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인터네트상에 공화국기를 휘날렸다.

첫 승전포성을 높이 울린데 이어 정보과학소조의 다른 학생들도 그후의 경연들에 참가하여 수만여명의 도전자들과 인터네트상에서 치렬한 두뇌전을 벌려 제시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제끼고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의 《코드쉐프》경연들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 올림으로써 룡남산의 청년대학생들은 6련승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김일성종합대학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 떨치였다.

경연에 참가하였던 한 학생은 당시의 심정에 대해 《올해에 들어와 첫 경연에 참가하는 나에게 많은것이 달렸다는 정신적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여 이기겠다는 신심으로 모든것을 이겨내고 제시된 문제를 풀어 인터네트상에 우리의 국기를 휘날렸다.》고 말하였다.

이들의 지도교원인 수학부 정보수학연구소의 신창현교원은 30대의 실력있는 프로그람전문가이다.

2017년부터 대학의 정보과학소조를 맡아 지도해온 그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심화시켜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학생들이 세계 일류급대학의 대학생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프로그람작성의 능수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신창현교원은 우리 식의 수재교육체계와 대학의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 이것을 떠여놓고 이번과 같은 성과를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만만한 야심을 가진 미더운 청년대학생들이 있어 세계적인 두뇌경쟁마당에서 공화국기가 계속 휘날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우리 공장, 우리 제품

인민들이 선호하는 식료품

선흥식료공장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들에 대한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현재 10여종에 400여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그중에는 리진튀기과자, 비타민튀기과자, 도마도빵, 들쭉탄산단물, 쑥탄산단물 등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십가지의 기능성식료품들도 있다.

갖가지 빵과 강정, 과자, 사탕, 에스키모, 음료 등은 평양의 백화점들을 비롯한 각지의 상점들에서 판매되는데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함께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상품, 명제품들을 생산하는것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있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예술영화《소원》의 축복받은 녀주인공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강산에 넘쳐나는 12월이다. 어버이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 평범한 군인가족예술소조원으로부터 예술영화 《소원》의 주인공, 중앙기관일군으로 성장한 백련희녀성의 마음도 이 시각 그이께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그의 가슴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소원을 안고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백련희녀성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축 복 받 은 삶

백련희녀성의 취재는 두번째만에야 이루어졌다. 80일 전투로 드바쁘게 지내다보니 좀처럼 기회를 낼수 없어서였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빨리 온다는것이 그만…》

만날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백련희녀성이 총총히 다가왔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로 다가서는 그는 9년전 영화에 출연할 때보다 숙성해보였다.

백련희녀성의 이야기는 강원도 김화군에서 태여난 그가 다섯살 나던 해인 1985년부터 시작되였다.

어릴 때부터 노래와 화술에 뛰여난 소질을 가지고있던 백련희는 그해에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에서 잊지 못할 나날로 되였다고 한다.

아이들속에 있으면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시며 그토록 사랑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장에 몸소 나오신것이였다.

그때 다섯살 나던 백련희는 축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가 올리는 꽃다발을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귀엽다고 그의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훌륭한 어린이가 되라고 축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복을 받아안고 꼬마재간둥이로 무럭무럭 자라난 그는 금성제1고등중학교(당시)에 입학하여 화술기량을 부단히 련마해갔다. 그 나날 조선소년단축하단성원으로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 참가하였고 설맞이공연에도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꿈이 많았습니다. 이름난 예술인이 되고싶었고 또 대학에도 가고싶었구요.》

허나 중학시절을 마치고 그는 군복을 입었다.

소원을 푼 독연의 주인공

▶ 백련희 하면 혹 모를지 몰라도 예술영화 《소원》의 주인공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영화출연에 앞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독연 《소원》에 출연하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연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 아니였다면 평범한 군관의 안해인 제가 어떻게…》

잠시후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87(1998)년 1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에서 군인가족들로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군인가족들을 예술소조활동에 많이 참가시키면 군인들을 교양하는데도 좋으며 군인들의 사기도 높여줄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라는 새로운 경연무대가 생겨나게 되였다.

시집와서 남편과 병사들을 위하느라 거울앞에서 얼굴 들여다볼 시간마저 아까워했던 군관의 안해들이 화려하게 떨쳐입고 무대에 나서게 되였다.

그들속엔 별의별 재간둥이들이 다 있었다. 한다하는 손풍금수가 있는가 하면 바이올린연주가, 장고명수, 독창가수, 무용수 지어 만담수도 있었는데 모두 들떠 경연준비에 열성을 부렸다. 악기들을 놓은지 오랜터라 연주가들은 부지런히 손풀이를 했고 성악가들은 목청틔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1998년 4월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였는데 공연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만점짜리라고, 우리 군인가족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미덥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태여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과 더불어 수많은 군관의 안해들이 명배우로 자랐습니다.》

여러차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백련희녀성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후에는 자기 재능이 크게 필요없다고 여겼던 그에게 있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의 나날들은 생의 활력을 더해주는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였다.

무디여졌던 화술재능을 되찾았고 예술적기량은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마냥 높아갔다고 한다.

그 나날 그는 알았다. 우리 장군님 아니시라면 평범한 군인가족들이 황홀한 무대에서 어떻게 마음껏 행복을 노래할수 있겠는가를.

그럴수록 가슴속에는 그리움이 더욱더 커만 갔다. 한번만이라도 그이를 모시고 공연하고싶은것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였다.

일일천추로 바라던 시각이 꿈같이 올줄이야. …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백련희녀성이 독연 《소원》에 출연하게 되였던것이다.

《독연 〈소원〉은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한 군관과 그의 안해가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은 간절한 소원이 꿈처럼 성취되는 실제한 사실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였습니다.》

(제발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날 무대막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널뛰듯 하였다.

《하루에도 여러번 오르내리던 무대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넓고 길어보이던지… 언제 마이크앞에 나섰고 어느새 대본의 절반을 형상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독연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어느새 긴장감은 사라지고 막힘없이 연기를 해낼수 있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독연 《소원》은 작품내용도 좋지만 백련희동무도 연기를 잘하였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연 《소원》을 예술영화로 옮길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백련희를 예술영화에 출연시켜도 전문배우들 못지 않게 주인공역을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을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이름없는 예술소조원이 온 나라가 다 아는 예술영화의 인상깊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예술영화 《소원》의 한 장면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

《그로부터 몇달후 새로 만든 예술영화 〈소원〉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를 인식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만들었다고, 특히 주인공역을 한 배우는 영화에 처음 출연하였는데 연기를 아주 진실하게 잘한다고, 그의 연기에서 인상적인것은 인위적인 과장과 가식이 없고 소박하면서도 순진한감을 주는것이라고 치하하시였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조국을 지켜선 남편들과 한전호에 서있는 군인가족들이 대견하시여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소박한 저의 연기를 높이 평가해주신것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상영된 후 그는 길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달려와 소년단경례를 하고 버스에 오르면 할머니들도 《어이구, 우리 군대색시로구만.》 하며 반가워했다. 백련희라는 이름보다 예술영화 《소원》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불리웠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그후 백련희녀성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기관의 어엿한 일군으로 자랐다.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바라던 모든 소원을 성취한 백련희녀성, 만복의 주인공이 되여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 그에게 또 다른 소원이 있을가?

이야기를 마치며 나직이 그가 한 말이 오래도록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천만가지 소원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려 제 소원만 풀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자식된 도리겠습니까. 자나깨나 우리 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것, 그것이 불타는 저의 소원입니다. 인민봉사부문의 일군으로서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평양의 설경

올해에는 류달리 첫눈이 많이 내린듯 싶다.

하얀 눈송이들은 유서깊은 평양의 모습을 은빛세계로 단장하며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놓았다.

아름답게 피여난 눈꽃들로 장관을 이룬 모란봉이며 고색짙은 대동문, 련광정의 설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발걸음을 뗄수 없게 한다.

평양의 설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이해의 자랑스럽고 긍지높았던 나날에 대한 추억과 함께 더 좋을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 끓는 환희가 넘쳐흐른다.

본사기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은반우의 혜성 한필화

1960년대 전반기 은반우에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속도빙상계를 뒤흔들어놓고 큰 규모의 국제경기들에서 2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선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공화국의 한필화선수이다.

소녀시절에 그는 속도빙상선수가 될 꿈을 안고 스케트소조원이 되여 훈련에 전심함으로써 조선민주청년동맹(당시)창립 12돐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에서 1등을 쟁취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어린 고급스케트를 받아안았다.

국내경기들에서 우승한 그는 1959년부터 모란봉체육선수단(당시)에서 속도빙상선수로 활약하였고 그후에는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선수생활을 하면서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63년 일본에서 진행된 국제속도빙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첫 경기에서 미국선수를 물리쳤으며 그해 일본에서 진행된 세계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우승후보자로 지목되던 이전 쏘련선수를 이기고 대회기록을 0.7초 갱신하였다.

196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줄 의지를 안고 달리고 달려 아시아선수로서 처음으로 메달을 쟁취하였다.

한필화선수는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동지날과 동지팥죽

동지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쇠온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상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하였고 상순을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동지날에는 팥죽을 특색있게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 팥죽을 동지팥죽이라고 한다.

팥죽을 쑬 때 찰수수가루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같이 빚어넣은 떡을 새알심이라고 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이것을 오그랑이, 도그랑이 등으로 불렀다.

동지팥죽을 들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생각과 함께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았으며 이웃들사이에 서로 나누어 먹으며 화목을 도모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동지날 해가 뜨기 직전에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팥죽을 겨울밤에 웅배기 같은데 떠서 밖에 내놓았다가 먹는 풍습도 있었다.

팥죽을 쑤어먹으면 독을 풀고 고름을 내보내며 설사가 멎는다.

또한 비만증, 각기병, 적리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여러가지 수종병(붓는병)에도 좋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여있는 동지팥죽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여있다.

올해의 동지는 12월 21일이다.

본사기자

암성질병치료에 좋은 주사약들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방사성의약품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암성질병치료에 방사성핵종삽입치료를 적용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치료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종물축소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주사약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방사선동위원소발생기를 제작하여 주사약을 국내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놓았다.

이들이 개발한 주사약들은 국가발명권과 과학기술성과 등록증을 받았으며 전국방사선의학부문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주사약들은 간세포암과 악성림파종, 전위선암을 비롯한 실질성악성종양과 무릎관절활액막염, 란소낭종을 비롯한 비암성질병치료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소에서는 종양선택성과 표적지향성이 높은 방사성의약품들을 개발하며 온열료법, 면역료법 등을 리용한 질병치료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력사유물

천상렬차분야지도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고구려시기에 만든 석각천문도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면서 1395년에 약간의 수정과 보충을 하여 만들어진 천문도이다.

건국초기에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한 고구려에서는 천문기상관측사업이 B.C. 3세기 초엽부터 진행되였다.

고구려에서는 천문관측경험과 자료들에 기초하여 5세기말~6세기초에 석각천문도를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는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한 항성표로서 세계적으로 매우 오래된 천문도이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 기초하여 만든것으로서 가운데의 큰 원안에는 성좌도가 그려져있고 그 둘레에는 각종 수표들과 설명문이 있다.

성좌도에서는 북극이 중심에 놓이도록 천구를 평면에 투영하고 282개의 성좌에 1 460여개의 별들을 표시하였으며 춘분점과 추분점의 위치, 28수의 매개 기준별에 대한 좌표를 표시하였다.

성좌도에는 또한 적도원, 황도원, 북극원과 함께 경도원이 밝혀져있으며 은하수도 그려져있다.

그리고 이 천문도를 만들면서 원본을 수정한 내용들을 밝힌 설명문에 의하면 고구려천문도의 별자리들을 12.5° 씩 돌려놓았다고 씌여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방향이 1년에 50.2초씩 서쪽으로 움직인것으로 볼수 있게 한다.

따라서 천상렬차분야지도는 조선의 귀중한 천문학유산일뿐아니라 세계천문학사에서도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본사기자

사화

최무선이야기 (9)

라세는 최무선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으로 알았던지 웃음을 거두고 미안한듯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겨우 지금에 와서야 당신을 부르는것이 나무랍기도 하겠습니다만 큰일을 생각하시고…》

최무선은 무슨 영문인지 깨닫고 웃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사실 나는 단념했더랬소이다. 그러나 내가 어찌 조그만 원한으로 웅졸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본시 조정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한 일입니다. 장군의 진력이 컸으니만치 오늘부터라도 왜적을 치는데 보탬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소이다.》

라세는 최무선의 높은 뜻에 못내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내 평생에 당신을 사귄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두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갔다. …

마침내 조정에서도 최무선의 훌륭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화통도감(고려때 화약제조하는 일을 맡은 림시관아)이란 기구를 설치하게 되였다.

최무선은 미미한 관직에서 벗어나 큰 공장에서 화기생산을 맡아보게 되였다.

갖은 신고와 외로움을 참아가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긴 세월은 지금 꿈결같이 먼 옛이야기로 되였다.

공장에는 연송 원료들이 들어왔고 한편으로 화통을 위시한 각종 무기와 탄약들이 무데기로 실려나갔다.

이때에 최무선은 벌써 52살, 화약제조에 뜻을 두었던 때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최무선의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는 화통을 장치할수 있는 전함을 고안하여 해전에서 화약무기를 활용할수 있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전혀 새로운 편제와 전술을 가진 수군이 조직되고 훈련되였다.

이 사업은 라세가 담당하였다. 그는 최무선과 함께 새 무기의 사용에 알맞게 그들을 훈련하고 새로운 전술들을 연구해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몽주가 왜나라에 갔다가 담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자 더욱 정당한것으로 되였으며 완고한 세신대족들도 겨우 열성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의 군대, 특히 수군은 새로운 무장을 갖추게 되였다.

그후 어느해 초가을에 왜의 해적선 500척이 진포에 들어왔다. 놈들은 전라도 남쪽을 돌아 북으로 올라올 계획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정부에서는 화약무기로 장비된 80척의 함대를 파견하여 놈들을 치게 하였다.

이때에 함대의 지휘자 해도원수는 라세였으며 부원수로는 최무선이 임명되였다.

본래 무인출신이 아닌 최무선은 부원수라는 중책을 맡고 그 임무가 무거움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승산이 있었다. 자기가 일생을 걸고 완성한 무기는 반드시 적들을 남김없이 쓰러눕힐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이였다.

장엄하게 대렬을 지은 80척의 함대는 남으로 향하고있었다. 배마다에 장비된 화통들은 무서운 위력을 품고 믿음직스럽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최무선은 배머리에 서서 앞을 내다보았다.

내 나라의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 바다, 이 땅에 어찌 원쑤들을 들여놓을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처음 화약연구를 결심하던 그때의 청년으로 돌아간듯 뛰노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함대가 금강의 하류인 진포포구에 다달았을때 적들은 벌써 물에 기여올라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살륙하면서 쌀과 재물들을 략탈하는중이였다.

놈들은 수백척의 함선을 즐비하게 련결하여놓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은 햇곡식을 연송 배로 운반해내고있었다.

놈들의 고려의 함대가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고 자기들을 치러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오로지 략탈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러한 때 고려함대는 은밀하고도 민속하게 적함들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행위를 눈앞에 본 많은 군사들은 이를 갈며 한시바삐 공격명령이 내릴것을 기다렸으나 최무선은 우선 모든 화통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표준하게 하고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함들을 일거에 불살라버릴 생각이였다.

고려함대가 적선가까이에 접근하였을 때 드디여 라세장군의 공격명령이 내렸다. 화통은 세찬 불길을 뿜었고 화포와 불꽃달린 화살은 련속 적함에 불을 일궈놓았다.

순식간에 진포는 불바다가 되였다.

상륙하여 쌀과 재물을 날라들이기에 미쳐날뛰던 해적들은 배를 잃고 이리저리 헤덤비다가 고려군사들의 맹공격을 받아 무리로 쓰러졌다.

이리하여 적함선 500척은 모조리 불타버리고 수많은 적병들은 몰살되고말았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최무선과 라세는 굳게 손을 잡았다. 배마다에서 높이 울리는 군사들의 만세소리와 승전고는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추악한 왜적들을 삼켜버린 조국의 바다는 더없이 푸르며 평화롭게 너울거렸다.

온 천지가 갑자기 생기를 띠고 더욱 거연한 이 나라의 모습을 밝혀주는것 같았다.

최무선은 돛배우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바다에서는 갈매기들도 화평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

최무선의 평생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고상한 애국지성은 드디여 열매를 맺고야말았다.

(끝)

유모아

온 마을이 국맛을 볼수 있게

고기장사가 《고기 사시오.》 하며 돌아다니는데 한 녀인이 고기를 산다 하고서는 이것저것 만져보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그 손을 국가마에 넣고 씻은 물로 국을 끓였다.

그 국을 먹은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국은 어찌 이리도 맛이 좋으냐.》고 물으니 녀인이 그 리유를 말하였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당장에 노하여 말하였다.

《너는 다만 한때 먹는것만 아는구나. 그 손을 장독에 씻으면 1년동안 국을 맛있게 먹을것 아니냐.》

때마침 그 집에 와있던 이웃집 로파가 그 말을 듣더니 말하였다.

《여보시오. 댁에서는 욕심도 많소그려. 그 손을 우물에 가 씻으면 온 마을이 국을 달게 먹지 않겠소.》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